

광주북구 대학로 상인들 “쓰레기 좀 치워주소” 하소연

거리두기 해제 등에 활기...담배꽂초 등 불법투기도 급증 북구 ‘자율청결’ 조례 따라 상인들 뭉쳐...“구청 지원 필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나와 쓰레기를 치우는 게 일입니다. 매일이 전쟁 같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광주 북구 전남대 인근 상인들이 담배꽂초 등 쓰레기 불법 투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북구 용봉동 대학로 상인들에 따르면 최근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식당, 카페, 술집 등을 찾는 발걸음이 늘고 있고 더불어 쓰레기 불법 투기도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이곳 주변에는 주택가 및 원룸 등도 위치하고 있어 의자, 침대 매트 등의 생활 쓰레기도 버려진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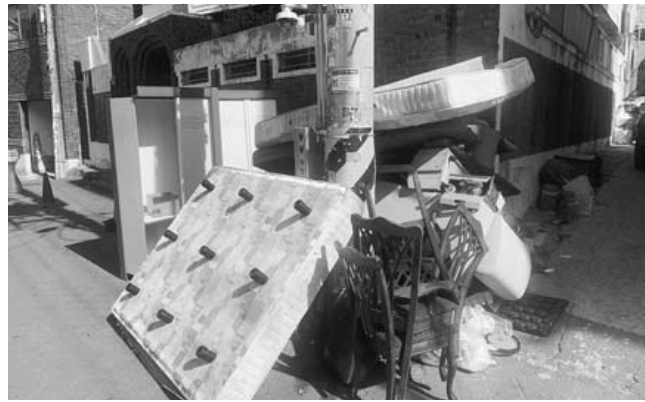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북구가 지난 2021년 6월 개정된 ‘광주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를 시행하면서 쓰레기 치우기가 오롯이 상인들의 몫이 됐다는 것이다.

해당 조례 제6조에는 ‘주민은 생활 주변의 청결 유지를 위해 스스로 내 집·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북구 대학로 자영업자들은 내 점포 앞을 청소해야 한다.

상인 박모(42)씨는 “이곳에서 오래 장사했다”며 “조례 개정 전에도 쓰레기



광주 북구 용봉동 대학로에는 식당, 카페, 술집 등이 밀집돼 있으며 이곳에는 담배꽂초는 물론, 침대 매트 등 생활쓰레기 등도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다.



광주 북구 용봉동 대학로에는 식당, 카페, 술집 등이 밀집돼 있으며 이곳에는 담배꽂초는 물론, 침대 매트 등 생활쓰레기 등도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다. /안태호 기자

불법 투기는 있었지만, 당시에는 북구 환경미화원 등이 손을 보태줬는데 조례 개정 이후에는 그야말로 ‘손질’을 해 상인들이 쓰레기 처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매일 같이 가게 오픈 때와 마감 때 담배꽂초 등 쓰레기를 쓸어담아 치우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게다가 가게 앞도 옆도 아니지만 가까운 곳에 쓰레기가 버려지는 경우 상인들이

처리해 준다고 들었다”며 “내 집 앞, 내 점포 앞은 당연히 주인들이 깨끗하게 해야 하지만 상가들이 밀집돼 있는 곳은 그 특성상 개인들의 관리에 더해 구청 등 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조례의 취지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것”이라며 “조례를 근거로 삼아 무조건 상인들에게 치우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가 많은 골목이나 민원이 심한 곳은 구청에서 치우고 있다. 상시 대기해 담배꽂초 등을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현재는 시민 동영상 제보 등을 활용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태호 기자

학동참사 2주기 추모식...“재발 방지 법안 통과돼야”

2년전 사고현장서 100여명 추모식 유족들 “작은 추모공간이라도...”

“처음 저희를 만나 약속했던 책임자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게 꼭 힘써주세요.”

지난 9일 오후 4시 광주 동구 구 삼성 디지털프라자 주차장.

2년 전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학동 참사’의 현장 바로 옆 이곳에서 열린 2주기 추모식을 앞두고 검은 정장 차림의 시민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뒀다.



지난 9일 열린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참사 2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슬퍼하고 있다. /안태호 기자

일찍 현장에 도착한 유족들은 건물 이 무너지면서 가족들이 타고 있던 버스를 덮친 참사의 현장을 허망하게 바라봤다.

추모식에 마련된 자리는 관계자와 유가족, 시민들로 빼곡하게 채워졌고 자리가 부족해 뒷자석에 서있는 사람들까지 100여명의 사람들이 추모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4시20분이 되자 개회선언으로 2주기 추모식이 시작됐고, 2분 뒤 참사 발생 시간이 되자 참석자들은 묵념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렸다.

2분간의 묵념이 끝난 뒤에도 유족들은 한참 동안 슬픔을 추스리지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묵념 뒤엔 이진의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송민영 동부소방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후 강기정 광주시장, 정무장 광주시장, 이병훈 국회의원 등의 참석자들은 현화대에 흰 국화를 올리며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진의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추도사를 통해 “참사 후 2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납득하지 못할 책임자 형량과 항소심이 여전히 진행 중인 탓에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 초기 사회적 관심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여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힘써 달라”고 전했다.

유가족들도 한순간에 참사를 당한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작은 공간 조성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와 지

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모 공간 조성을 포함한 추모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운림5번 시내버스가 매몰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도박’ 외국인들지구대서 집단도주...3명 검거

20cm 창틈 사이로 10명 달아나...광주경찰, 나머지 추적 중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 10명이 경찰 지구대 창문을 통해 집단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 중 3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7명을 추적하고 있다.

1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께 광산구 월곡지구대 회의실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10명이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이들 외국인은 앞서 오전 3시께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으며, 지구대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은 회의실을 오가며 이들의 신원과 도박 자금 등을 확인 중이었지만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10명이 회의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도주에 이용된

창문은 약 15도 가량 밖으로 기울일 수 있는 ‘시스템창’으로, 활짝 열리는 공간이 약 20cm에 불과하다.

경찰은 오전 6시40분께 도주 사실을 인지했는데, 집단 탈주는 6시20분께부터 약 20분 동안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월곡지구대에는 지구대 1개 팀과 지원 경찰 등 12명이 관리하고 있었다.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는 형사 9여명을 동원해 도주한 외국인을 추적, 자수한 2명을 포함해 총 3명을 다시 붙잡았다. 경찰은 도주 베트남인에게 휴대전화, 교통신, 은신처 등을 제공하는 조력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처벌할 방침이다. /이윤근 기자

고흥서 갯바위 낚시 중 바다 빠진 60대 숨져

고흥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60대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11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0분께 고흥군 영남면 용굴마을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60대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3척을 급파해 바다에 표류 중인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소생하지 못

했다. 해경은 A씨가 갯바위에서 낚시 물품을 주우려다 발을 헛디뎠다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갯바위 낚시 활동을 할 때는 구명조끼와 미끄러움 방지 신발을 착용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선진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패